

고흥군, 전국 첫 ‘귀촌·외국인 교육 플랫폼’ 구축

법무부 사회통합 지역학습관
외국인·귀촌인 정착지원 본격
이민자 인구 회복 핵심 계기로
“맞춤형 이민정책 지속 발굴”

전라남도 고흥군이 귀농·귀촌인과 외국인 이민자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와 정착 지원이 가능한 전국 최초의 인구유입 통합교육 플랫폼을 구축했다.

고흥군은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가 법무부 지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 생활정보, 사회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는 정착지원 제도다.

군은 해당 프로그램을 ‘귀농귀촌 행복학교’와 연계해 귀농·귀촌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정착을 지원하는 공신력 있는 인구 유입 교육체계로 마련했다.

고흥 귀농귀촌 행복학교는 지난 2019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전문 귀농귀촌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으며, 현재까지 총 700여명의 교육

생을 배출했다.

최근 6년간 고흥군에는 누적 1만919명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돼 고흥군이 ‘전국 귀농 1번지’로 자리매김하는 데도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군은 이번 지역학습관 지정을 계기로 외국인 이민자를 지역 인구 회복의 핵심 축으로 삼고, 다양한 이민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흥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기관과 시설이 없어 장기 비자 전환 및 이민자원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역학습관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고흥군은 △외국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지역특화 비자 인력 유치 △근로자 가족 초청 △이민자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맞춤형 이민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

구례군,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
구례읍·문척면·광의면 중심 추진

전라남도 구례군은 이달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교육·지역사회·공공기관 등 5개 분야, 22개 기관(단체)과 함께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구례읍·문척면·광의면을 중심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자살 위험이 있는 군민들에게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은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 수단 차단 등 5가지 활동 중 2가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실천하게 된다.

2024년 10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전년 대비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구례군에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자살 위험이 높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안심마을 조성을 통해 생명존중 실천 범위를 넓히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발굴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신건강 위기 상황 시에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9), 자살예방상담전화(109)를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구례=김상현 기자

장흥 1박2일 골프·관광상품 판매
JNJ 골프 CC·주요 관광지 방문
25일 오전 6시~6시45분 생방송

전라남도 장흥군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장조경제혁신센터, GS홈쇼핑-롯데투어와 협업체 관광상품 판매에 나선다. 이번에 판매하는 상품은 정남진 장흥 1박2일 골프·관광상품으로,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6시45분까지 45분간 생방송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상품은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목요일부터 일요일로 주 4회 예정이며, 6월4일부터 7월21일까지 7주간 운영한다.

상품 가격은 관광만을 원하는 소비자는 19만9000원, 관광과 JNJ 골프 CC에서 골프까지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중 25만9000원, 주말 29만9000원이다.

관광상품으로는 각종 드라마,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된 장흥 옛교도소 뼈빠용 Zip을 통해 교도소 내부 관람 등 특색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힐링체험도 가능하다. 새단장을 마친 장흥126타워(정남진전망대)에서 푸른 바다와 숲을 한눈에 담을 수도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시, ‘편 워킹’ 참가자 모집
내달 7~8일, 원도심 축제서

전라남도 순천시는 오는 6월에 열리는 ‘원츠(Wants) 순천’ 축제 일환으로 글로벌 인기 캐릭터 벨리곰과 함께 걷는 ‘FUN SLOW WALKING’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편 워킹’은 오는 6월7일 글로벌 웹툰 센터를 시작으로 옥천을 지나 남문터광장까지 차 없는 거리를 벨리곰 10마리와 함께 걷는 퍼레이드형 프로그램이다.

벨리곰은 지난 2018년 롯데홈쇼핑이 자체 개발한 분홍색 곰 캐릭터로, 국내외로 180만명의 팬덤을 보유한 글로벌 IP이다.

편 워킹 참가비용은 1인당 5000원으로, 참가 접수는 22일까지이며 총 4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자에게는 벨리곰 머리띠와 순천시 대표 캐릭터인 루미몽이 스포츠백을 증정할 계획이다. 도착 지점인 남문터광장에서 완주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한다.

참가자는 행사 당일인 6월7일 오후 1시까지 웹툰센터 주차장 현장사무소에서 증정 물품을 착용하고 웹툰센터 앞으로 집결하면 된다.

‘편 워킹’ 외에도 주 행사장인 남문터광장에서는 벨리곰 대형 포토존(10m), 벨리곰 댄스파티&포토타임도 즐길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난 15일 보성군 벼 모판관주처리 연사회에서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판관주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 벼 모판관주처리 연사회 개최

전라남도 보성군은 지난 15일 읍어면 소재 옥묘장에서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벼 모판관주처리 현장 연사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사회는 벼 재배 농업인과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

판관주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시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 활용법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판관주처리’는 이앙 1~2일 전, 살충제, 살균제, 작물 활성제를 물에 희석한 후 물뿌리개를 이용해 옥묘 상자당 약 400ml를 관주하는 방식이다.

보성=양중수 기자

순천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시작

병원 동행매니저가 보조해
진료 1주일 전 읍면동 접수

전라남도 순천시가 혼자 병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홀로 병원 이용에 어려

움이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매니저인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어르신의 진료 활동을 보조하는 돌봄 지원 사업이다.

순천시와 순천시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며,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어르신 돌봄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타지역의 병원 동행 서비스와 차별화된 순천시만의 특화 돌봄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이날부터 시작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최소 진료 1주일 전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 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등급자 및 보훈재가서비스, 장애인활동지

원서비스 등 유사 동행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신숙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께 꼭 필요했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순천시와 자원봉사센터가 함께 추진하게 돼 기쁘다”며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병원 동행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1차 교육을 수료한 34명을 동행매니저로 위촉했으며 이달 중 2차 교육을 통해 10명을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광양시, ‘출생장려 표어’ 공모
내달 1일까지 온라인 접수

전라남도 광양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2025 광양시 출생장려 표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응모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6월1일까지이며,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출 형식은 띄어쓰기를 제외한 30자 이내의 간결하고 함축적인 문장으로, 결혼·임신·출산·육아·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포함해야 한다. 다자녀 가정의 장점과 긍정적 가치, 저출산 해결을 위한 고민과 실천 등 저출생 극복 관련 내용이라면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응모 기간 내 네이버 폼(<https://naver.me/G28WDUdc>)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이메일(chaso97@korea.kr)로 표어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광양시 관계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맡아 진행하며, 최종 수상작은 오는 6월 중 발표된다.

수상자는 총 3명으로, 최우수상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상 1명에게는 30만원, 장려상 1명에게는 20만원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수여된다. 선정된 표어는 시의 각종 홍보물, 현수막, 인쇄물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출생보건과 출생지원팀(061-797-4758)으로 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